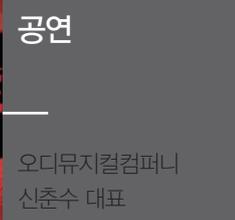


크리에이티브 코리아 4.0

+ 2013 크리에이티브 메시지

대한민국 콘텐츠산업의
젊은 CEO 10인이
새 정부에 바란다!

콘텐츠 분야의 젊은 CEO 10인에게 2013년 새해의 사업 계획과 새롭게 출범하는 정부에 바라는 점을 물었다. 당찬 포부와 열정으로 가득찬 젊은 CEO들이 전하는 메시지를 들어본다.

 <p>애니메이션</p> <p>로이비주얼 이동우 대표</p>	 <p>영화</p> <p>다세포클럽 장원석 대표</p>
<p>방송영상</p> <p>삼화네트웍스 안제현 대표</p>	 <p>캐릭터</p> <p>부즈클럽 김부경 대표</p>
 <p>지식정보</p> <p>카카오 이석우 대표</p>	<p>출판</p> <p>아이웰콘텐츠 김성민 대표</p>
 <p>만화</p> <p>웹툰 윤태호 작가</p>	<p>음악</p> <p>스타쉽 ENT. 김시대 대표</p>
 <p>공연</p> <p>오디뮤지컬컴퍼니 신춘수 대표</p>	 <p>게임</p> <p>컴투스 박지영 대표</p>

애니메이션

로이비주얼 이동우 대표



대표 콘텐츠
로보카폴리, 우비소년

2013년 사업계획

당사는 올해부터 일본과 러시아, 미주 지역 등에 진출하여 <로보카폴리>를 전세계 어린이들의 스타로 만들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로보카폴리> 추가 시리즈 제작 및 글로벌 시장을 목표로 한 새로운 캐릭터 애니메이션 개발 등 대한민국의 대표 콘텐츠 브랜드를 창조하고 키우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새 정부에 바라는 점

새 정부는 콘텐츠산업 육성에 대한 의지가 높은 것으로 압니다. 이제는 세계시장에서 스타 콘텐츠로 성공할 수 있도록 제작업체의 글로벌 사업화 능력을 키우는데 정부의 지원이 모아져야 한다고 봅니다. 콘텐츠 기업에 대한 정부차원의 과감한 세제혜택을 도입, 해외시장에 진출한 콘텐츠 연관상품 개발 및 마케팅지원, 서울 시내에 콘텐츠산업단지 조성 등 중소기업체를 육성하는 정책이 절실합니다. 아울러 애니메이션 제작에 대한 민간투자 활성화를 높이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도입해주시길 바랍니다.

영화

다세포클럽 장원석 대표



대표 콘텐츠
점쟁이들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2013년 사업계획

현재 전도연, 고수 주연, 방은진 감독의 <집으로 가는 길>이라는 작품을 제작하고 있으며, 신정원 감독의 SF영화 <더 독>이라는 작품을 벵가드 스튜디오와, 김성훈 감독의 코믹스릴러 <무덤까지 간다>를 AD406과, 스포츠 드라마 <마지막 승부>를 심엔터테인먼트와 공동제작합니다. 자체 기획작품으로 코믹사극액션 <기사 개똥이>를 준비중입니다.

새 정부에 바라는 점

한국영화산업은 최근의 호황 이면에 여러 가지 열악하고 불공정한 면들이 존재합니다. 핵심적으로 바라는 바는 정부의 영화산업에 대한 인식의 전환입니다. 새 정부는 영화산업이 산업뿐 아니라 문화적 측면에서 엄청난 영향력과 파급력을 가진 산업이라는 점을 인식해 더욱 과감한 투자와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 영화 지원기관의 권한을 확대하여 지원 규모나 범위가 확대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합니다.

방송영상

삼화네트웍스 안제현 대표



대표 콘텐츠
제빵왕 김탁구, 명성황후

2013년 사업계획

회사의 주력사업인 드라마제작을 양적으로 확대하여 4~5편의 제작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상파 편성 4편 정도와 종편을 포함한 케이블편성 1편 정도로 예상하고 준비중입니다. 기존의 단순한 제작사업 외에 국내외 판권시장 확장과 드라마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드라마 OST사업, 캐릭터 사업 등 각종 부가사업 시장확대와 매출 증대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새 정부에 바라는 점

콘텐츠 기획과 창작을 담당하는 제작사들에게 최근 한류등의 영향으로 대단히 커진 대중문화산업의 과실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정책입안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방송사와 외주사간의 표준계약서를 준비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콘텐츠 제작에 기여하는 제작사의 기여분과 권익이 지금처럼 무시당하지 않도록 해주시길 바라며, 음악, 영화등 많은 콘텐츠들이 창작자보다 유통, 배급사 중심으로 수익배분되는 기형적인 구조를 조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캐릭터

부즈클럽 김부경 대표



대표 콘텐츠
뿌까, 캐니멀

2013년 사업계획

뿌까 TV 애니메이션 시즌 3 준비중입니다. 새로운 3D 형태의 뿌까 애니메이션을 선보여 좀더ダイナミック한 뿌까의 모습으로 한국 대표캐릭터의 자존심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또한 산업의 경계를 뛰어넘어 뿌까의 복합문화공간을 설계중이며 다양한 장르의 뿌까 모바일 게임을 적용시켜 부즈는 앞으로 사업다각화로 글로벌 캐릭터브랜드로서의 면모를 갖추어 국내에도 좀더 공격적인 행보를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새 정부에 바라는 점

점점 중국의 애니메이션 산업 시장이 커지고 대규모 성공 프로젝트가 등장하는 급격한 전환기를 맞고 있는 상황이므로 애니메이션 및 캐릭터 등 한중 합작을 위한 투자용자 확대, 특히 애니메이션 펀드 확대 지원이 필요합니다. 또한 더욱더 중소기업 활동의 글로벌 활성화를 위해서는 애니메이션 및 캐릭터 제작 인프라 센터 구축 및 애니메이션 및 캐릭터 인력 양성사업 확대가 필요합니다.

지식정보

카카오 이석우 대표



대표 콘텐츠
카카오톡, 카카오토리

2013년 사업계획

카카오톡과 카카오토리의 친구관계와 트래픽을 기반으로 모바일 소셜 플랫폼으로 도약한 카카오는 2013년 사용자, 파트너 사들과 새로운 도전을 통해 모바일 생태계를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누구나 콘텐츠를 제작해 판매할 수 있는 모바일 콘텐츠 플랫폼 카카오페이지를 비롯해 카카오토리를 고객 소통 채널로 활용 가능한 스토리플러스를 준비 중에 있으며, 올 초 선보인 채팅플러스도 계속해서 제휴 관계를 확대해 사용자들이 더 다양한 앱과 콘텐츠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 중에서도 특히 카카오페이지는 기존에 콘텐츠 생산자나 사업자들이 콘텐츠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것에 주목해 가치 있는 콘텐츠가 제값을 받고 유통되는 신개념의 모바일 콘텐츠 플랫폼입니다. 콘텐츠를 가진 창작자라면, 1인이든 기업이든 누구나 콘텐츠를 제작, 유통, 판매할 수 있습니다.

출판

아이웰콘텐츠 김성민 대표



대표 콘텐츠
장미와 찔레
이토히로부미, 안중근을 쏜다

2013년 사업계획

요즘은 책을 읽으려는 사람들보다 쓰려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저희는 묻혀진 원고들 중 재미있고 유익하며 가치도 있는 것들을 발굴해서 전자책으로 만드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이와 같이 종이책을 전자책으로 옮긴 것이 아니라 기획단계부터 전자책에 맞춰 적합한 주제, 분량, 구성으로 만든 전자책 전용 콘텐츠인 'eBook only' 상품들을 적극적으로 출간해 많은 전자책 읽을 거리들을 제공하고 싶습니다.

새 정부에 바라는 점

다이어트 성공법은 누구나 다 알지만 성공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 이유는 특별해 보이는 비법들을 찾아 헤매기 때문입니다. 콘텐츠산업의 성장을 위한 방법 역시 특별한 비법 대신 간단한 본질에서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 우수한 콘텐츠들이 많아지고, 소비자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면 됩니다. 정부에서는 이런 조건이 갖추어질 수 있게 산업 성장의 자양분이 되는 평범하고 본질적인 노력들에 역량을 꾸준히 집중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만화

웹툰 윤태호 작가



대표 콘텐츠
이끼, 미생

2013년 사업계획

2013년 <미생>으로 제 13회 대한민국 국회대상 올해의 만화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미생>은 한국 기원 연구생으로 들어가 프로기사만을 목표로 살아가던 청년 장그래가 입단에 실패하고 종합상사의 인턴사원으로 살아가는 이야기입니다.

이 작품이 6, 7월경 종료되고 나면 <인천상륙작전>이라는 작품을 3월부터 시작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중편 공포만화를 8~10월경에 시작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세종대에서 만화 강의도 하고 있습니다.

<미생>이 연재 완료되면 전국을 돌며 사인회를 개최하여 독자들을 직접 만나려고 합니다.

<인천상륙작전>은 한겨레 신문 주말판에 실리고 온라인은 버전은 티스토어에 올라갈 예정입니다.

음악

스타쉽 ENT. 김시대 대표



대표 콘텐츠
씨스타, 케이윌

2013년 사업계획

아티스트 활동 영역 확대, 다양한 협업 프로젝트 시도, 글로벌 킬러 콘텐츠 제작의 세 가지에 주력하려고 합니다. 첫째, 음악을 넘어 드라마, 영화 등 다양한 영역을 넘나드는 아티스트를 발굴, 육성하여 한류의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둘째, 음원시장의 다변화에 따른 다양한 협업 프로젝트의 시도를 통해 다채로운 음악적 스펙트럼을 가진 시장으로 성숙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K-POP의 유니크함에 보편성이 가미되어 세계인이 즐길 수 있는 글로벌 킬러 콘텐츠 제작에 중점을 둘 예정입니다.

새 정부에 바라는 점

K-POP이 단순한 현상을 넘어 진정한 세계인이 즐길 수 있는 문화가 되기 위해서는 보다 현실적인 해외진출에 대한 지원이 절실합니다. 해외시장을 개척해나갈 전문인력의 육성, 양질의 콘텐츠 제작을 위한 공격적 투자, 수출 기업과 K-POP 콘텐츠의 전략적 제휴 등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어 내기 위한 정부의 꾸준한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공연

오디뮤지컬컴퍼니 신춘수 대표



대표 콘텐츠
지킬앤하이드, 드림걸즈

2013년 사업계획

2013년 'Be Creative & Global' 전략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한국 뿐 아니라 해외시장에서도 뮤지컬 〈Doctor ZHIVAGO〉, 〈SPIN〉, 〈Holler If Ya Hear Me〉, 〈Yoshimi Battles The Pink Robots〉 등 새 작품 개발과 제작에 참여할 예정이며, 국내에서는 기존에 공연되었던 뮤지컬 〈스팸어랏〉, 〈드림걸즈〉, 〈스토리 오브마이라이프〉, 연극 〈미드썸머〉의 공연을 계획하고 있고, 새 작품 개발도 계속할 예정입니다.

새 정부에 바라는 점

콘텐츠산업은 제도·관리적 측면보다는 자유롭게 창작을 할 수 있는 환경과 지원 여건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존 지원 프로그램은 관리 측면이 강해 개발단계에서는 적용이 어려웠습니다. 따라서 개발단계의 지원을 통해 자유롭게 콘텐츠를 개발할 수 있는 배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기초예술에 대한 탄탄한 지원이 필요하고, 콘텐츠산업을 이끄는 프로듀서들에 대한 정확한 시각 또한 정립돼야 합니다.

게임

컴투스 박지영 대표



대표 콘텐츠
타이니팜, 홈런왕

2013년 사업계획

다양한 장르의 게임 타이틀을 지속적으로 내놓으며, 국내 뿐 아니라 글로벌 오픈마켓을 대상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해나간다는 전략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중장년층을 겨냥한 골프, 낚시 등 게임도 출시하고, 모바일게임 플랫폼에도 적극 대응할 예정입니다. 또한 중소기업의 우수게임을 발굴하여 글로벌 퍼블리싱을 지원하고, 투자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새 정부에 바라는 점

새 정부가 콘텐츠산업에 관심을 가지고, 집중 육성할 5대 글로벌 킬러 콘텐츠로 게임을 꼽아서 기대가 큼니다. 모든 산업에는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다는 점을 이해하고 순기능을 살려 국가의 성장동력으로 제 역할을 할 수 있게 이끌어 주었으면 합니다. 이를 위해 역기능에만 초점을 맞춘 선 규제 정책 보다는 진흥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 게임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는 데 힘을 보태주었으면 좋겠습니다.